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The Family Altar



(교회학교 영아부 찬양대)

충현교회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구분하는 방법이 학자들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지만 재래적 방법을 따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 7 장 :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도들의 사역이 진행됨
- 8 - 12 장 :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전개됨
- 13 - 18 장 :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됨

이상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다른 나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단계에 꼭 매듭이 한번씩 지어지는 것을 발견한다. 1 - 7 장까지 와서 예루살렘의 담을 넘어가는 순간에 어려움이 생겼다(스데반의 순교). 또 12 장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뛰어넘어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기 직전에 또 한번 어려움이 생겼다(헤롯의 박해로 야고보 순교). 그리고 8 장 부분에 가서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확장되는 그 순간에 또한번 고개를 넘어가는 사실(바울 사도가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됨)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핍박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고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다. 환란과 핍박이 없이는 교회 성장은 있을 수 없다.

기독교회는 언제든지 고난과 연결시켜야 한다.

5월의 기도제목

- 1. 이종윤 목사님과 김창인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 2. 교역자들의 가정과 평안과 능력을 위하여
 - 3.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기도생활을 위하여
 - 4. 제직들의 사업과 자녀들을 위하여
 - 5. 6월 6일부터 시작될 시온성대행진을 위하여
 - 6. 목회자 세미나를 위하여
 - 7. 교회학교 부흥을 위하여
-

「사도들이 놓이매 그 동료에게 가서」(4 : 23상)

승리의 지속 한 번 하기도 힘든 승리를 계속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승리하고 난 다음에 패하면 모처럼 승리한 것도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항상 감사 배은자가 되지 않고 받은바 은혜를 기억하여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믿음의 동지들의 은공을 외면치 않고 항상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21:23).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고마와할 줄 알게되어 있습니다. 이웃의 은공을 고마와할 줄 아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께 대한 보답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상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고객의 은공을 잊어버리거나 동지들의 기도로 성공한 사람이 동지들의 성원을 잊어버린다면 계속적인 승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사도들은 출옥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음에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고 기도를 쉬임없이 하던 그 동료들을 찾아가서 모든 일을 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24). 감사가 끊어진 성도는 계속적인 성공도 끊어집니다.

* * 정직한 양심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동료의 은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내장, 오장육부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수가 좋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내장 속에 어떤 병균이 침투할런지 아슬아슬한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제의 보살핌이 없으면 한 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모든 승리와 성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겸손과 정직과 지혜와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의 질문의 초점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되었는가에 맞춰 있어야 합니다. 엘하다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일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것을 알고 계십니다. 공평하게 그 모든 일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기도 한 번 승리하고 두 번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허락하셨사오니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화) 승리를 계속하는 비결 ②

찬송 497 성경, 행 4 : 23-31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4 : 31)

분명한 목표 승리를 계속하려면 목표를 세우되 세운 목표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변하지 않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사도들과 동지들은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소리를 높여' (24). 두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통성기도입니다. 같은 제목을 놓고 온 교인이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대표기도를 할 때 온 성도들이 그 기도예 동참을 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목표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전진을 해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자신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초점을, 모든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응답받게 됩니다.

영적 충전 승리를 계속하려면 영적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링위에서 있는 권투 선수는 영원한 패자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쓰러져야 합니다. 인간도 힘이 빠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은 계속적으로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설날 아침에 떡국 한 그릇 먹고 일년을 버틸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4 : 31). 전도의 삶을 사는 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 * 기도하면서 정한 전한 목표를 기도 후에는 쉽사리 변경하십니까. 성령께서 허락하신 목표는 계속해서 밀고 나가십시오. 난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목표가 흐려집니다. 말씀이 회소해지면 목표가 흔들립니다. 배터리가 충전되면 차는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출발도 못합니다. 말씀이 충전되면 나아가 전하게 됩니다.

기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늘 넘어지오니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시어서 선한 목표를 달성하게 하옵소서. 이종윤 목사님과 김창인 목사님. 모든 교역자들이 말씀이 충만하여 바로 가르치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4 : 32)

질적 성장 교회는 양적성장 못지않게 질적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질적 성장을 재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곤고, 환란, 핍박 중에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는 사람이 수준 높은 신앙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함께 나누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신앙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되도록이면 공동체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협력을 해서 전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한 몸의 지체로서 형제간의 공동체 의식을 느끼면서 얼마나 더불어의 삶, 나누는 삶을 사느냐, 얼마나 나누는 삶에 숙달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의 척도가 됩니다. 이것이 질적인 성장의 모습입니다.

마음을 나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4 : 32). 초대 교회는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백인백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이 다르듯이 마음도 다른 법입니다. 각양각색의 배경과 경험과 다른 환경에서 살던 분들이 모여와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진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토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요 신앙의 본입니다. 발전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발전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발전은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고 발전입니다.

****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 찬양이 있습니까? 높은 수준의 신앙인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못견디십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항상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계십니까? 차원 높은 신앙인입니다. 생활하다가 돌아가는 종착역이 어디십니까? 성경인지요, 교회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인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 자기주장, 자기고집으로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입술에는 찬양이 없사오니 주여 살피시사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세계의 요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목) 차원 높은 신앙수준 ②

찬송 346 성경, 행 4 : 32-37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러라』(4 : 35)

소유를 나눔 초대교회는 소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4 : 32). 노사분규가 심각해지는 것은 가진자와 갖지 못한 자의 문제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는 많이 가진 자가 자진해서 적게 가진 자에게 소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공산주의 운동은 신학적인, 정신적인 사상을 빼놓고, 무신론 사상을 빼놓고는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공산주의 운동은 커뮤니티(공동체)를 위한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러나 3.8 이북의 공산주의는 공동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공동체인데 개인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을 공산주의라고 했지만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운동입니다. 나누었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나누었습니다. 헌금은 세금과 다릅니다. 세금은 원치 않아도 내라니까 억지로 바치는 것이고 헌금은 감사해서, 자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눔 초대교회는 복음을 나누었습니다(4 : 33).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맡겼듯이 내게 복음을 주신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재물을 독점한 자를 모리배라고 한다면 복음을 독점한 자를 배임자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됩니다. 복음이 급히 전해져야 할 시기입니다. 이 절박감, 거서 받았으니 거서 주어야 되는 채무감, 복음의 빛진 자의 심정 때문에 바나바 처럼 재물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생명도 바치는 것입니다.

******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가난한 형제를 돌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회수해 가실 것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승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사업도 확장되고 물질도 풍부해지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혈벗은 이웃을 입힐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 내 노력 내 재주로 치부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축복권 때문에 부해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돌려드리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국제회관 빨리 건축해서 세계교회 지도자들에게 영력을 공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5 : 4)

위선죄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므로 기도운동, 전도운동, 구제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운동과 함께 교회 안에는 무서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위선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랑의 징계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교회 내부에 죄악이 침투해 들어올 때는 교회는 신성유지, 질서유지, 범죄예방, 성령님의 지속적인 역사를 위하여 범죄한 자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징계는 사랑에 배치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하는 매입니다. 교회 안에 권장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중심, 교회중심, 하나님의 발 쏘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순수성 유지와 진리유지, 성령역사의 계속을 위해서는 권장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뽑아줄 것은 뽑아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술해 주는 것이 권장입니다. 속한 진단과 속한 치료와 속한 제거가 없는 한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이 지연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과감한 처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 위선죄는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자신을 속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는 사악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속을 들여다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게 위선이 없는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심판 배후에는 초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있습니까? 성도를 순수하게 유지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다만 내가 징계의 대상은 될 지언정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기도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날마다 보면서도 우리에게 징계의 방망이가 임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여러성음을 용서하옵소서. 이 땅의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풍토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5 : 3 상)

위선죄 초대교회는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는 비극적인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후 초대 교회는 강력한 회개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고 있던 순간에 찬물을 끼얹듯 비극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위선자가 저주를 받는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밭을 팔아 자기의 용도를 위해 얼마큼 남긴 것이 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감추고 다 바친 척 하는데 있습니다.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행위는 위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선죄를 범치 않기 위해 우리는 십일조를 바쳐도 교회에 바치고 구제를 해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악의 공모 아나니아 삽비라는 베드로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4 절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두번째 죄복은 악을 공모한 것입니다. 부족을 서로 보충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부족을 돕는 것이 아니라 더 부족하게 한 것입니다. 부부는 선을 같이 도모해야지 악을 함께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은 죄를 짓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8). 회개는 죄인에게 유일한 구원의 문제입니다. 지옥가는 죄는 한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죄입니다. 천국가는 사람도 안 지은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 자신의 직분 배후에 있는 헐뜯음, 괴롭힘, 등등의 위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헐기를 부리면 다른 사람은 사랑과 인내로 받아주며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에게서는 침묵으로 중화시키며, 횡포하는 자에게는 온유함으로 마음을 녹여주며, 나태한 자리에 떨어진 자에게는 근면함으로, 낭비하는 자에게는 절제로, 절망하는 자에게는 격려로 보충해 주는 것이 배필이요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기도 나의 눈을 열어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선의 씨앗을 볼 수 있게 하옵시며 베일을 벗고 선명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새로 출범한 권사회를 축복하시고 교회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5 : 5)

과감한 수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대한 심판과 초대 교회의 징계 뒤에 따라 온 것은 멸망이 아니라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란 멸시의 반대말입니다. 당시 교회는 시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가면서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의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수술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체없이 잘라내는 용기를 보였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쳐다보게 되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존경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의 권위 교회도 칼도 없고 총도 없습니다. 무슨 권위가 교회에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될 경우, 교회 본연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때, 교회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한 알의 떨어진 밀알이 될 때, 교회가 희생의 도를 보이고 사랑의 도를 실천할 때 교회는 권위가 생깁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저 예수님만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명령만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예수님의 마음만 가지고 움직이면 그 성도는 권위가 생기고 그 교회가 사회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고 양보하면 권위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다 내어 놓았지만 좋은 것이 그에게 돌아갔고 그 조카 롯은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았으나 다 빼앗겼습니다. 세상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지 못하면서 성도들은 수준 높게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은 그렇지 못하면서도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들만은, 기독교인들만은 그렇게 살아주기를 기대합니다. 베드로사도의 말씀처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찬리게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약점이나 연소함때문에 멸시를 당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재산도 생기고 교회도 부흥합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선한 생활에 힘씁시다.

기도 내속에 있는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성도의 본연의 자리를 지켜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굶주리고 있는 어린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사랑의 손을 펴주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 (월) 칭송받는 교회

찬송 29 성경, 행 5 : 12-16 .

「백성이 칭송하더라」 (5 : 13 하)

사랑 온유 겸손 교회가 다른 사람앞에 두려움의 대상만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랑이 있고 부드럽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회의 자세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사모하고 평안을 누리 고 기쁨을 맛보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수준과 생활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신앙수준을 높일 때 칭송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상식수준 이하여서는 안됩니다. 많은 사람이 잘 믿는다고 하면서 상식이하의 일들을 많이 합니다. 상식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의 빈축을 삽니다. 특히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식수준에 미치지 못해서는 안됩니다. 상식이하일 때는 덕의 문제에 걸리는 것입니다. 덕스럽지가 못한 것입니다. 믿음에 덕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벧후 1 : 5)

바른 권징 초대교회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불신과불의 불충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회개운동부터 일으켰습니다. 이럴때 하나님은 자비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자비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병든 사람만 낫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서 놀랍게 흥왕하였습니다. 교회가 번창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권징을 바로 했더니, 죄를 처리해 버렸더니 깨끗해졌습니다.

** 예배에 늦게 와서 앞자리로 비집고 들어가거나, 아기를 업고 들어와 수천명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발에 무좀이 있다고 구두 벗어놓고 의자에 올라앉는 상식이하의 행동은 없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말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부스럼 난 데 더 할퀴는 일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회의 악을 규탄하고 정치인들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최소한도 상식의 선을 넘어서야 합니다.

기도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볼 줄 알면서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씻어주시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먼저 처리하게 하옵소서. 출현교회는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5:17)

제일 목적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소요리 문답 제1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소유한 어떤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상반된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고전10:33).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다보면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람의 비위를 맞추다보면 하나님을 외면해야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생겨지는 것입니다.

양자택일 베드로는 하나님과 대제사장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만족스럽고 후대에 귀감이 될만한 선택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말을 들으라고 소리치는 대제사장들은 당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17) 부활을 반대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여 사람들을 모아 당을 지어 예수님께 대항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17). 남 잘될 때에 미워하는 마음을 시기라고 합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상대방과 경쟁이나 하고 졸장부 노릇이나 했다면 그들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오히려 빗나간 길을 걸어가고 있는자요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떨어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 하나님 보다는 이 세상의 부나 명예나 생명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일을 양자택일해야 할 경우 거침없이 하나님을 택하고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 보다는 자기파에 세력을 확장하고 당을 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이 잘될 때에 기뻐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마음에 거북함이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개교회주의를 버리고 협력하여 세계를 향하여 복음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5 : 29)

중상 모략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 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을 견제하고 공포감을 주어서 복음사역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다가 마침내는 투옥하였습니다(18 절). 소련의 스탈린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소위 종족이라고 알려진 사람을 우리 나라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3천만 명을 숙청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런 독재자들 앞에서 양심을 굽히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고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갈 1 : 10). 바울 사도는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늘 구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대치시킬 경우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선 순위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29).

자녀된 자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국민은 집권자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도 하고 순종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대치가 될 때에는 하나님순종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 * 공익보다는 사리사욕에 도취한 사람은 지도자의 자질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위협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기억합시다. 죽을 사람, 풀같이 되어질 인생들, 이슬같이 떨어질 인생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 그 불꽃같은 눈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앞에 삽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열과 온 힘을 쏟읍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비록 기도라 할지라도 옆사람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큰 소리로 해서는 안됩니다.

기도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도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문화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내일 모래 있을 충현 올림픽에 충현의 가족 모두가 참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5 : 33)

비난 거부 공격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세가지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비난과 거부와 공격이었습니다. 복음은 영접하지 않는 자의 비위에는 거슬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없애려 하는데는 몇가지 이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기 하락, 죄악폭로입니다. 이기심은 복음까지도 배척하는 무서운 행동을 낳게 합니다. 이스라엘 성군 다윗은 한나라의 왕의 위치에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경책을 달게 받고 뜨거운 눈물로 회개할 때 (삼하16장) 하나님의 종애를 다시 회복하고 성군이 되었습니다. 땅위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심지어 바울도 실패했고 많은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 피조물 가운데 아무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자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인 아합왕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돌아다니다가 자멸하였습니다. 헤롯은 세례요한의 목을 베고 망국의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어려운 교회는 문제가 문제를 자주 물고 나옵니다. 초대 교회에서 사탄들이 사도들만 잡아드리면, 사도만 쓰러지면, 사도들만 낙심하면, 사도들만 죽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 하나 낙심시키면 됩니다.

****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골라먹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자기들이 듣고 싶은 설교만 골라서 듣는 사람은 편식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들을때 그앞에서 자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이 하나님편에 서있고, 나만이 교회편에 서있고, 나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설픈 종교인은 아닙니까. 확실치 못한 종교인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기도 복음을 영접할 뿐아니라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음은 열리게 하옵시고 불신자를 향해서도 열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일 출현 올림픽을 통하여 교회가 일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5 : 35)

방관 사도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한 방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산헤드린의 존경받는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죽이자는 과격파 의원들을 무마시킵니다. 그 이유를 역사적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의 논리는 기독교 운동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었으면 성공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 기인되었으면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지성인답게 설득시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났으나 다 흩어져 없어졌고 갈릴리 유다가 일어났으나 다 흩어졌느니라 (5 : 36-37). 가말리엘의 연설은 논리와 철학에 있어서 재치 있었을 뿐아니라 적시타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설득작전에서 배울 게 있습니다. 이단자는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구경꾼 가말리엘은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이 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원만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지식인이고 지성인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보면 기회주의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몸을 조심하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나약한 지식인이라 합니다. 아는게 많으니까 용기가 없습니다. 결정을 못하고 찢찢 맵니다. 설익은 청년들은 확신만 들면 무섭게 밀고 나가지만 지성인 교수들은 성패를 보고야 행동합니다. 가말리엘은 아는 것이 많았으나 뜨겁지 못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를 못했습니다. 가말리엘은 구경꾼이었습니다.

**** 예수님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자를 토해버리신다 하셨습니다. 미지근하여 주의 입에서 토해져서는 안됩니다. 뜨거움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고 톤이 올라가던 음성이 한 옥타브 내려옵니다. 쌍시옷자를 곧잘 토하던 자가 사랑과 은혜와 감사라는 새방언을 사용하게 됩니다. 말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민족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가말리엘 같은 어설픈 지식인이 되지 맙시다.**

기도 지식과 지성이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약한 지식인도되지 않게 하소서. 참된 인격자가 되게 하시고 출현올림픽에서 뭉친 힘을 시온성 대행진에서 발휘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5 : 41)

순종 '저희가 옳게 여겨' 문자적으로는 '그들이 그에게 설복되어'라는 뜻으로 원어에서는 '그들이 그에게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말리엘에게는 설복되었으나 복음에는 설복당하지 못했으니 비참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번째 부류의 반응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줄로 여겼고 기뻐하였습니다. 미국의 홀러 신학교의 교회성장학 교수 피터 와그너 박사가 한국에 와서 특강을 하는데 숫적 질적 성장을 재는 자막대기는 결국 통계표였습니다. 새벽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느냐, 헌금은 수입의 몇%를 하느냐, 봉사하는 도수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질적성장을 재는 자막대기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수한 교회 질적으로 우수한 교회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는 교회입니다(5 : 41).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욕먹는 것을 합당한 줄로 알아 원망이 없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채찍을 맞았으나 기쁨으로 나갔습니다. 가말리엘도 역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실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위대하고 축복받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에서 사도들은 가말리엘 같이 우유부단하거나 비활동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상한 충성으로 명예로운 상처를 입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쉬지를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성전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생존과 민족의 생존은 복음화에 달려 있습니다.

** 생활하는 기간중 상당시간이 기쁨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고난은 누구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도 사방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질적으로 우수한 신앙인이 됩시다.

기도 고난과 핍박보다 더한 적(敵)은 인일입니다. 주여, 물질팽배 사회에서 열락에 빠져 무기력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구역마다 권하고 일으켜 온 성도가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갇힌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 (주일) 그로잉 패인 (Growing Pain)

찬송 359 성경, 행 6 : 1 - 6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6 : 1)

성장과 아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땅에 강림을 하시게 됨으로 인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하는가 했더니 북풍한설이 내리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겨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마귀들과 일전을 불사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발썩을 따라 전진전진 또 전진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생기는 무서운 일들을 그로잉 패인이라고 합니다. 성장과정에서 생겨지는 아픔입니다. 가정에서 어린아기를 키우다보면 자라는 과정에서 병도 들고 설사도 하고 열도 나고 이상한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자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기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장을 하다 보면 아픔이 생깁니다. 국가 민족사회도 성장하다보면 아픔이 옵니다.

악의 뿌리 초대교회의 아픔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간에 일어난 다툼때문이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다툼의 발단이었습니다. 초대 교회에 처음 생긴 시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사건이 이 다툼의 사건입니다. 이두가지 사건이 모두 물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세가지 원인은 정치와 결탁할 때와 교회가 너무 부해질 때, 교리적으로 타락할 때입니다. 돈은 일만악의 뿌리입니다. 교회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 물질문제에 초연해야 합니다. 교회 수입의 60% 이상을 밖으로 내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부패하지 않습니다.

**** 신앙생활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아픔을 믿음으로 잘 견디 나가면 성장하려니와 이 아픔을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오히려 신앙의 손해를 보는 수도 있습니다. 이 아픔이 물질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물질로부터 초연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객관적 입장에서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기도 신앙성장에 필요한 아픔이 올 때는 참고 승리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아픔이 올 때는 초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충현교회는 예산의 60% 이상을 교회 밖으로 내어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5대양 6대주에 복음과 함께 사랑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칭찬들은 사람 일꾼을 택하라」(6 : 3)

영역 자주권 초대교회는 내적인 갈등과 아픔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군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거나 일하지 아니하고 일군을 택하시어 그 일군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군에게는 업무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의 분량을 정확하게 한계를 그어 주셨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6 : 4) 이 사도들의 한계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이요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대언자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이 두가지를 통해서 확장되고 전진되어 왔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도는 백성들의 모든 죄와 간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칭찬듣기 집사들은 교회의 출납과 구제하는 일, 물질적인 일들을 해야합니다. 집사의 자격은 성도간에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이웃에게는 흠이 없고 성실한 사람, 덕있는 사람, 선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덕이 없으면 그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추앙과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충만 받으면 변화가 옵니다. 성령충만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지도력을 갖습니다. 재능을 갖습니다. 담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합니다.

** 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요리사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같은 옷감을 가지고 의복을 만들어도 재단사에 따라 맵시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그 일을 맡은 일군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흠족해하실 일군입니까? 마음에 안들어 하시는 일입니까? 사람 앞에 칭찬들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군입니다. 성령충만 받고 변화받아 지도력과 재능을 겸비한 일군이 됩시다. 하나님이 세우기를 기뻐하는 일군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 남이 손가락질하는 줄도 모르고 자고했던 허물을 용납하시고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군이 되게 하옵소서. 업무한계를 잘알아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끼어들지 말게 하옵시고 자신의 일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능력있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 (화) 일군의 자격 ②

찬송 431 성경, 행6 : 1-6

「지혜가 충만하여」(6 : 3)

지혜충만 집사의 자격은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사람과 사는 것은 암콕과 사는 것보다 힘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자로만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군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순서있게 할 줄 압니다. 무엇을 먼저하고 무엇을 나중하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공급을 타룰 때도 효과있게 다룹니다. 하나님의 일군은 또한 백성들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백성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찍었을 것이고 희생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찍었을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신앙전수 ‘그들에게 안수하니라’(6 : 6) 안수의 의미는 신앙전수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목격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믿은자 머리위에 안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속사도입니다. 속사도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은 또 그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수되어 온 것입니다. 정확한 신앙을 고백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수는 그들의 직무를 취임시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사역을 위해 필요한 신령한 축복의 선포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민27:18, 신31:9).

****** 덕을 끼치고 있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덕이 미련을 상쇄하지는 못합니다. 덕에다 지혜를 첨가해야 합니다. 나의 미련함으로 가정이 교회가 손해를 보아서는 안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약1:5).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고백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기억하십시오(딤후3:14). 정확한 신앙의 고백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일군입니다. 년초에 임직한 사역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해를 다하기 까지 충성합시다.

기도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해도 주시고 덕도 허락하시어 맡기신 책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24부 교회학교에 세우신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맡기신 어린양들 잘 기르는 은혜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점점 왕성하더라」(6:7)

말씀강화 ‘점점 왕성하여’는 미완료시제로서 꾸준한 지속성을 보여줍니다. 한번 왕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왕성했습니다. 바른 일군이 바르게 업무를 수행하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일군이 일을 잘하게 되면 말씀이 흥왕합니다. 말씀을 잘 증거하면 교회문제는 사라집니다. 행정을 아무리 잘해도 말씀이 약해지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시시한 문제는 사라집니다. 교회안에 말씀이 흥왕하면 질서가 잡힙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제자강화 말씀이 흥왕하니 제자의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잊지 못하고 뛰어나가 전도하니 교회의 수가 증가됩니다. 자꾸만 부흥합니다. 120명이 3천명이 되고 5천명이 되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면 수만명이 되었습니다. 원수들도 믿게 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도’란 신앙,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안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복종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인격과 말씀을 신실히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일군의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복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타협이 있지만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 일잘하는 일군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더욱 열심히 하십시오. 일감을 만드는 일군이라고 생각되시면 속히 돌이키십시오. 교회에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열심이 많을수록 더욱 교회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속에 말씀이 메말라 있습니까? 내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흥왕하게 하고 교회 안에 흥왕하게 하십시오. 특히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바른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은 교회 행정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에게 열심 주심을 감시합니다. 그러나 이 열심이 오히려 주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옵소서. 엘리야와 엘리사같은 능력도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청림결백한 은혜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6 : 8)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군을 세우셨는데 그 일군 가운데서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만큼 힘있고 능력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였기에, 어떤 행위와 삶을 가졌기에, 그렇게 세상이 능히 감당할수 없는 그와 같은 인물이 되었던가요?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테반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은혜였습니다.

공익과 봉사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받고 용납받았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권능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육신의 병 뿐 아니라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면 세상에 장례식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죄값으로 누구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 하나님의 용납을 입은 사람,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테반은 공익중심이요 봉사중심이었습니다. 이기심을 버린 자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항상 지는 자입니까 은혜가 충만치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부와 영화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시다. 참으로 곤란한 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으면 마음의 병을 떨쳐 버릴 수 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받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합시다. 말도 거칠게 하지 맙시다. 화도 자주 부리지 맙시다. 친구와 자주 타투지 말 것이며 욕심에 때문지도 맙시다. 목이 굳아서도 안되고 마음이 완악해서도 안됩니다.

기도 우리의 마음 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쏟지 않도록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찬양대원들이 은혜가 충만하여 천사같은 얼굴로 찬양을 부르게 하옵시사 듣고 보고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6 : 10)

말공해 오늘 우리는 말공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괴변을 말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국회에서도 소리지르고 옥박지르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콤한 미사여구에 속아 넘어갑니다. 스테반은 그런 형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권위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테반이 변론에 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말했습니다. 스테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힘있는 말이 세상에 없습니다.

말은 인격 스테반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끌어오르는 구령에,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구원해 내려는 정열이 특신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에 불붙어 말했으니 그의 뜨거운 말이 어찌 힘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말은 진지하고 엄숙하고 열정적이며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격에서 나옵니다.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즐겁게도 합니다.

** 칼을 들어 살인한 적은 없어도 말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가슴을 도려내는 실수를 한 적은 없는지요? 생각이 나는대로 찾아가 사과를 드리십시오.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입혔던 상처가 씻은듯이 아물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 얼마나 가식이 많은지 생각해 봅시다. 조그마한 일들을 눈덩이처럼 키워서 말하는 습관은 없는지요? 힘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언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얼마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언어에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은 우리의 입에 새로운 언어를 담아 줄 것입니다. 복음 아닌 것에는 입에 말씀의 재갈을 물립니다.

기도 우리의 인격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는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서만수 목사님과 정영옥 사모님, 윤태곤 목사님 가족을 지켜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복음화가 방해받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6 : 15)

맑은 꼴 스데반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스승이 가르친 것을 잘 확장시켜서 그 뜻을 잘 이루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비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떨어져 있으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아버지를 향하여 “불쌍한 저 무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던 모습이 스데반의 얼굴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얼굴은 마음을 반영시킵니다. “천사의 얼굴은 진실의 상징입니다. 경건의 상징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후회가 없고 감사와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실과 경건과 평화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삶을 가진 사람이 천사처럼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중심에는 오직 주님, 오직 복음, 오직 사랑 뿐이었습니다.

야욕 거짓을 진리라고 억지를 쓰는 사람들이나 거짓을 말하면서 참말을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먼저 얼굴 빛이 변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은 흥분할 까닭이 없습니다. 고함치고 발악하고 분노하는 행위는 자기의 주장과 야욕을 이루려는 무리들의 상투적인 수단입니다.

※※ 천사의 얼굴은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고 적의를 품은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이며 자학하는 사람이나 자신을 비하시키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한번 살펴 봅시다. 천사를 닮아 있는지 사탄을 닮아 있는지, 먼저 마음에 사심을 없애고 야심을 없애야 합니다. 빈 마음에 오직 주님, 오직 복음만을 심어야 합니다. 겉치레나 하면서 겉모습을 아름답게 단장하지 말고 속마음을 진실과 경건과 평화로 채워야 합니다. 모나리자와 같은 미소를 항상 머금은 인생, 스데반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 나의 완악함이 얼굴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속마음을 정결케 하옵시고 미소와 광채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애굽의 이준교 선교사님과 독일의 육호기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복음이 다시 확장되어 애굽과 독일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7 : 38)

은총의 역사 하나님의 신실한 종 스데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다가 돌무덤에 쌓
여 장엄한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향하여 역사를
회상케 하므로 과거사를 통하여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바
라볼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지적
한 역사는 이스라엘의 과거사를 통해서 은총의 역사라고 단
언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1 - 8)이 본래는 하나님
의 백성이 아니더니 아브라함을 부르신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자랑하고 사랑하던 요셉을(9 - 16) 이스라
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 애굽으로 보낸 것이나 위기에 처
한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 도탄 중에서 구원하신 것(17 -
35),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으로 공급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36), 선민들의 신앙의 대
현장이 되고 생활의 규범이 되었던 모세의 율법을 시내산에
서 허락해 주셔서(37 - 38) 받은 사실, 죄많은 이스라엘 백성
을 심판하거나 유기하지 않고 기어코 가나안에 입성케 하시
고 정착케 하신 사실(44 - 50)과 그후 계속해서 선제자들을 보
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고 낙심해가는 이스라엘
을 향도하시다가 마침내는 메시아까지 보내 주셨으니(52) 이
거야말로 위대한 민족사의 은총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어느 한 페이지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부분이 있었
으며 어느 한 모퉁이에 하나님 없이 되어진 부분이 있었습니
까?

****** 우리는 모두 본래부터 훌륭한 가문이나 하나님의 가문
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은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인정받을만한 것이
있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스라엘의 과
거가 은총의 역사였던 것처럼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우
리 민족사가 은총의 역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
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불러봅시
다.

기도 버려지 같은 저희들을 이다지도 사랑하시어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으
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이
은총에 보답하게 하옵소서. 파라과이의 김재창 선교사님과 안석렬 선교사
님 가정을 지키시어 원주진 선교도 확장되게 하시고 신학교도 성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 (월) 반역과 순종의 역사

찬송 351 성경. 행 7 : 51-53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7 : 52하)

치욕의 역사 스테반은 은총의 역사를 설명한 후 곧 반역의 역사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편에서는 은총의 역사요 인간편에서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요셉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줄 알면서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았고(9 절)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계속 반항하여 금송아지를 만든것(39-43), 자기들을 위하여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51-52), 마침내 구원자 메시아까지 죽여 천사가 준 율법도 지키지 못한 자가 되었으니(53) 이스라엘의 역사는 치욕의 역사요 진노의 역사요 심판의 역사로 나아간 것입니다.

보답의 새역사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저들은 불순종과 패역을 버리고(행전 4 : 3, 히13 : 8), 순종과 보답의 새역사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는 언제든지 받아줄 것이며 용서하실 것입니다(요일 1 : 9). 그러나 끝까지 깨역한 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마3 : 9). 자신을 개혁하고 국가를 혁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사는 회개와 순종의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 새 시대를 구가하고 반만년의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민족사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사로 계속될까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개인의 역사를 돌이켜 봅시다. 지난날의 쓰라렸던 역사에서 얻은 부요의 역사를 풍요와 사치와 열락의 역사로 전락시키지는 않고 있는지? 형통의 역사를 방종의 역사로 보답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공의 역사를 오만의 역사로, 영광의 역사를 치욕의 역사로 바꾸어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소욕때문에 적은 것을 구한 에서처럼 잠정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찾다가 영원을 상실해 버리는 불행한 역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감동적인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진리와 사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회개와 순종과 충성과 믿음의 역사로 보답의 역사를 시작합시다.

기도 불행했던 날들을 씻어주시고 수치를 굴러가게 하소서 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흐트러짐없이 하게 하옵소서. 인도의 엘리야 겔간 선교사님과 칠레의 유재일 선교사님을 강건케 하옵시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토착화되어 버린 인도와 카톨릭이 성행하는 칠레에 주의 복음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6 : 5 - 6)

실패자 이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 같으나 실패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 같으나 성공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스테반은 너무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보통 죽음이 아니라 폭도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스테반은 그의 사역에서 위대한 성과를 올리지 못한 고로 그를 가리켜 실패자라고들 합니다. 당대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수천명씩 회개했는데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는 회개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셨다면 그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만큼 비통해야 할 사람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일찍 죽었다고 해서, 땅위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실패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생애 스테반은 성공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스테반은 자기 생애의 전부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부활의 사건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칠 수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전하는 일에 성실하고 그리스도의 일에 전력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간에, 소유한 재산이 많은 적든간에 생애가 길든 짧은 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련을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위대한 생을 산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네가 얼마만큼 깨끗하게 하고 왔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물으시는 것은 네가 나를 경배하기 위하여 얼마나 정성과 희생을 바쳤느냐를 물어보십니다.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 잠을 희생하십니까? 주의 일을 위하여 건강을 희생했습니까? 복음 사역을 위하여 물질을 희생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 온 세상 사람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주님의 증거자로 살게 하시고 깨끗한 생애를 바치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때를 주시어서 주님의 재림이 평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7 : 59하)

영예로운 죽음 인간은 한번은 죽게되어 있습니다. 영예로운 죽음을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치욕적인 죽음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렬한 죽음을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통한 죽음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전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죽을 때는 부끄럽게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는 그 늘진 생활을 하다가 후대에는 후광을 남기고 죽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가정을 위해 죽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죽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 스데반은 성공적인 죽음을 맞은 사람이었으므로 성공적인 유산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선생을 팔아먹은 가롯 유다는 은 30을 벌기는 하였으나 유산으로 남기지 못한 채 부끄럽고 저주스런 인생으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오래 살지도 못했고 많은 결신자나 화려한 업적도 남기지 못했지만 많고도 큰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준 인물입니다. 아름답고 충성스러운 집사의 상을 남겨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오고 오는 세대에도 집사의 모델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또한 열심이 특심한 전도자의 상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실천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복의 비를 소나기처럼 내려달라고 비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용서를 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 자기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죽음을 죽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젊어서 죽든 늙어서 병들어 죽든 사고를 당하여 죽든 간에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을 때에는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 돈 몇푼에 인격을 팔아먹지 않게 하시고 명예때문에 신앙의 유산을 포기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박행렬, 장부용선교사님을 통하여 서사모아가 복음화되게 하옵시고 의술로도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8 : 1)

채워야 할 고난 오늘날 교회하면 복을 받고 영광을 차지하고 대접을 받고 성공의 자리며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곳인줄 생각 하지만 교회는 모든 것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기신 고난을 몸에 채우는 곳입니다. (골 1장). 교회가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자랑스럽게 되고 어깨를 펴고 목을 곧게 하고 목소리를 크게 발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 일로에 빠지게 됩니다. 정치와 규합을 하고 금전적 결탁을 하고 세상의 유행과 유흥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활력소가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공교회 중공교회의 질적인 내적인 신앙의 모습은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있고 우리보다 깊은 신앙을 체험하고 있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남기신 고난을 그 몸에 날마다 체득을 하고 있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사가 없지만 말씀이 살아있고 설교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동이 있으며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곳도 없지만 영혼깊이 울려 나오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찬송을 부릅니다. 박해가 없는, 고난이 없는, 환난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할까 두렵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으나 비난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오는 것이고 핍박은 그리스도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 해방이전의 한국교회는** 핍박을 받았으나 오늘의 한국교회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난을 받지 않고 차라리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다가 돌에 맞는 고통의 길을 택하는 길이 참길이요 바른 길입니다. 신앙이 안일한 상태에 놓여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기신 고난을 내몸에 채우지 않는 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확장되지도 않고 내 이웃을 향하여 지리적으로 확장되지도 않고 심층적으로 깊이있게 뿌리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이 비난의 대상으로 바뀌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한 전미령 선교사님을 불드시어 능력있게 하시고 케냐가 복음을 받게 하옵소서. 일본의 유병세 선교사님의 사역에 더하는 복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 (금) 위대한 신앙인

찬송 189 성경. 행 8 : 4 - 8. 12-13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8 : 8)

일사각오 초대 교회에 많은 인물들 중 우리는 빌립을 기억합니다. 그는 생사를 초월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8 : 5). 계속해서 핍박이 오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집사님은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믿고 곤고한 중에서 주님을 찾았을 뿐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앞서간 선배들은 주님 제일주의로 산 사람들입니다.

국경초월 빌립집사는 국경을 초월한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저주를 받고 있는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 유대인인 빌립집사가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헬라, 로마, 그밖의 많은 민족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을 먼저 택하여 복음을 증거하려 간 것은 국경을 초월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빌립은 이해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면 성공율도 적을 것이며 물질적인 혜택도 적을 것이며 명예도 유익도 없을 것이었습니다만 그는 이해 타산을 초월해서 오직 생명만을 귀하게 여기고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찾아간 것입니다. 빌립집사님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했으니 사마리아 성에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 국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빌립처럼 우리는 우리 주위에만 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눈을 높이 들고 아시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 아프리카를 보고 눈을 들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빌립처럼 이해를 초월해야 합니다. 타산적인 전도인들도 땅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 몸만 살찌우는 샅군목자도 세상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발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농부처럼 기뻐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이웃에게 가서 친척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기도 입으로만 생명까지 바친다 하지 말게 하시고 이해와 국경을 초월하여 복음들고 나아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북한에서 고통으로 울부짖는 내 형제들의 눈물을 거두시고 복음으로 활짝 웃는 때를 속히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9 : 1하)

인간문화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인간문화의 발달과정을 개인의 발달 과정에 비교했습니다. 어렸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인 것처럼 고대사도 역시 죽음의 문제로 씨름했고 청년시절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인 것처럼 중세기에 가면 종교문제로 씨름했고 노년기에 의미, 가치의 문제를 논하게 되는 것처럼 근대사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역시 의미, 가치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기팽창 유사 이래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전도자로 알려진 사도 바울의 일생도 자기중심기, 자기붕괴기, 새로운 자아탄생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생들에게 자기를 중심해서 사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기 기호에 맞으면 선이 되고 자기 취향에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을 악으로 치부하는 참으로 불쌍한 결론을 내리는 시기입니다. 자기를 우상화합니다. 이들에게 종교는 악세사리나 호신술에 불과합니다. '살기등등'은 자기 편견과 자기 주장과 자기 감정에 팽창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내부에 자기가 팽창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가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명색이 종교인이요 지성인이요 지도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당시의 세도가인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자기과신, 자기도취, 자기고집으로 팽창되어 매우 위험하고 불행한 자리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 아직도 지나치게 자신을 믿고 있습니까? 건강과 재산, 지위 때문에 자기 과신에 도취되어 있습니까? 유년기를 벗어나지 못한 유치한 단계입니다. 이웃과의 모임에서나 교회의 모임에서 자기 의견만 앞세우고 자기 기호만 주장하면 자기우상화입니다. 그럴때 기독교는 한갓 악세사리로 비하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종교인이라 부르지 말게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팽창되어 최권능 목사처럼 '예수'가 튀어나와야지 자기로 팽창되어 시간마다 고집과 편견과 주장이 튀어나와서는 안됩니다.**

기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자기에게 고정된 시선을 돌려 타인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목회자 세미나가 부흥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계지도자들이 새힘을 얻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듣는자가 다 은혜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몬도 믿고...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8 : 13)

호기심 교회 안에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종종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관심도 갖지 못한 채 교회의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쫓아다니고 교회 안에서 호기적이나 보지 않을까해서 호기심과 관심 때문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이단 사마리아는 미신과 이교의 도시였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초대교회와 초대전통의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빌립의 이적에 호기심이 생겨 기독교를 직업적으로 이용해 보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반기독교적 이교집단을 시작하였습니다(행 8 : 9, 10).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는 마귀의 역사도 뒤따르는 것이 상례입니다.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내용이 없는 겉치레만 하는 감정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는 신앙이라기 보다는 눈 앞에 나타나는 기적에 호기심이 끌려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신앙의 내용을 바라보면 공허하기 그지없고 왜 믿느냐고 하면 믿는 도리를 말할 줄도 모르고 왜 주님을 따르느냐고 하면 오히려 이기적인 생각밖에는 토해내는 것이 없었던 매우 피상적인 겉모양만 가진 종교인이었습니다.

****** 우리는 교회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동자를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되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교역자를 좋아하되 주의 종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성도끼리 좋아하되 주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좋아해야 됩니다.

기도 진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날마다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름과 생활에 그리스도인으로 열치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병중에 시달리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군문에 있는 아들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8 : 18)

배금신앙 시몬은 겈치레의 신앙인이었을 뿐 아니라 또한 배금적 신앙인이었습니다. 돈 몇푼 주면 성령까지도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돈 가지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가진 사람들은 구원도 살 수 있고 천국도 명예도 은사도 심지어는 성령까지도 살 수 있는 줄 착각하며 흥정합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 가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입니다. 하물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중공의 교회는 30년 동안 모택동과 씨름을 하고 순교적인 신앙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문화혁명 동안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신자들,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중공의 문이 열리면서 미국에 사는 교포들과 미국인들, 구라파인들이 돈을 준 결과 지하교회는 갈라지기 시작하고 다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일만약의 뿌리입니다.

물량공세 마귀들이 한국교회에 일제 시대때는 칼을 가지고 쫓아 왔지만 오늘은 물량공세를 퍼붓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이 유혹하고 위협하고 공갈하는데 이 유혹을 잘 뿌리치고 이겨내는 성도가 마지막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너무 돈이 많아 케딜락 자동차를 사서 타다가 죽을 때 케딜락이 너무 아까와 케딜락 케딜락하고 죽어서 죽은 사람을 케딜락에 태워 무덤 속에 함께 장사지냈습니다. 케딜락을 무덤에 가지고 갔다고 해서 그 케딜락타고 천국에는 못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교회는 교육비 선교비 구제비를 계속 밖으로 내어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 “너무 부하지도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량적인 것에 유혹을 받지 않고 돈을 분토와 같이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기도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금년 12월에 있을 한·중·일 세나라의 지도자세미나에 함께 하시어서 아시아가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8 : 24)

무속신앙 시몬은 겐치레의 신앙인이며 배금사상을 가진 종교인이었을 뿐 아니라 또한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던 잘못된 신앙을 베드로가 책망하니까 얼른 회개할 생각은 않고 벌이나 오지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벌받을 줄 알고 믿는 신앙은 무속적 신앙입니다. 죄는 회개않고 벌만 모면하려는 사람들, 그것도 남의 기도를 빌려 그와같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속신앙인입니다. 시몬은 믿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입니다(13).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화나 면해 보겠다고 하는 무속, 기복신앙이 오늘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잘못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고난의 종교입니다. 기복신앙은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령받아야 이 무속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공중에 빙빙돌아다니는 악령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오신 분입니다. 가슴이 찡하거나 머리가 이상한 게 성령 받은 것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오시는데 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책이 성경책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성령님이 오십니다. 말씀 없이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고 가슴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받은 증거입니다. 또한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해야 됩니다. 고귀한 것을 분토처럼 버리고 분토와 같은 것은 보물처럼 보려는 이 세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뿜은 태인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는 십자가입니다.

**** 기독교를 축복의 종교로만 생각하는 무속신앙은 없는지 자신을 잘살펴 보아야 합니다. 성령받았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떠먹듯 하는 자는 아닌지요?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분토와 같이 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골프치러 가기 위해 주일을 범하는 악세사리 기독교인은 아닌지요?**

기도 잘못은 많으면서도 회개는 적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속에서 벗어나 참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게 하소서. 내뿜은 태인 십자가 잘도지고 따라가는 십자가 정병이 되게 하옵소서. 90년 중현교회에서 모일 세계교회협의회 3차 회의를 축복하셔서 세계교회에 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8 : 28)

균형 우리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케치프레이스에 의해서 행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이 조금도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중요한 기둥임에는 틀림이 없지마는 어느 부분이든지 너무 한 쪽을 강조하다보면 발란스가 깨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라는 말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도 찾아야 됩니다.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우선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삼키는 열심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는 진리를 사모하는 열심을 가졌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사모하여 그 멀고 뜨거운 사막길, 낮설고 물설은 타국을 마차타고 왔으니 진리에 대한 열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는 일국의 재무장관으로 바쁘고, 자리를 비우는 것도 쉽지않은 일이었으나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엄매이기 쉬운 일들을 벗어났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또한 진리에 대한 지식습득에 열심했습니다. 마차위에서까지 성경을 읽다가 지도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곧 지식을 습득할 태도를 보였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나' 나그네의 질문은 기분 나쁜, 패색한 것이었으나 지식에 대한 열심이 개인적 감정과 피곤과 핑계까지 삼켰습니다. 내시는 병거를 휴식처로 삼지 않고 도서실로 삼았습니다. 다음에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영향을 주지 아니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대로 실천하는 열심을 가졌습니다.

* * 오직 은혜만 강조해지 말고 나의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이 없으면 채지도 덥지도 않은 미제군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토함을 받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가 우리의 열심을 삼키게 해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호기심에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됩니다.

기도 복음에 대한 열심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열심이 단순한 호기심에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음달에도 지켜주시고 말씀에 충만하게 지도하옵소서. 충현의 만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 | |
|--------|--------------|
| 1 (월) | 승리를 계속하는 비결① |
| 2 (화) | 승리를 계속하는 비결② |
| 3 (수) | 차원높은 신앙수준① |
| 4 (목) | 차원높은 신앙수준② |
| 5 (금) | 호사다마 |
| 6 (토) | 회개치 못한 자의 비극 |
| 7 (주일) | 존경받는 교회 |
| 8 (월) | 칭송받는 교회 |
| 9 (화) | 귀감이 될만한 선택 |
| 10(수) | 하나님 순종 |
| 11(목) | 복음에 대한 반응① |
| 12(금) | 복음에 대한 반응② |
| 13(토) | 복음에 대한 반응③ |
| 14(주일) | 그로잉 패인 |
| 15(월) | 일군의 자격① |
| 16(화) | 일군의 자격② |
| 17(수) | 타협과 비타협 |
| 18(목) | 스데반처럼① |
| 19(금) | 스데반처럼② |
| 20(토) | 스데반처럼③ |
| 21(주일) | 은총의 파노라마 |
| 22(월) | 반역과 순종의 역사 |
| 23(화) | 성공적인 삶 |
| 24(수) | 성공적인 죽음 |
| 25(목) | 핍박의 활력소 |
| 26(금) | 위대한 신앙인 |
| 27(토) | 자기중심기 |
| 28(주일) | 잘못된 신앙① |
| 29(월) | 잘못된 신앙② |
| 30(화) | 잘못된 신앙③ |
| 31(수) | 복음을 받은 자의 열심 |
-

가정예배 안내

예배 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